

전통 · 예술성 담은 '필봉백년' 공연

전북특별자치도 · 임실군 지원 전통예술지역 브랜드 상설공연 20일 필봉문화촌서 개막

오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이 지원하는 전통예술지역 브랜드 상설공연 '춤추는 상쇠 필봉백년' 공연이 막을 올린다.

필봉백년 공연은 오는 20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19시 30분 필봉문화촌에서 펼쳐진다.

임실필봉음악보존회에서 주관하는 춤추는 상쇠 시리즈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예술지역 브랜드 상설공연 공모사업에 13년 연속 선정됐다.

춤추는 상쇠 '필봉백년'은 전통문화의 격동기인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필봉에서 마을굿을 지키고 살던 양상쇠와 마을을 떠나 성공하고자 하는 아들 봉필, 그리고 필봉농악을 지켜온 필봉마을 사람들의 삶을 그린 이야기다.

전통혼례식, 소물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전통연희극으로써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필봉산 아래 고즈넉이 자리 잡은 필봉문화촌은 공연뿐만 아니라 한옥 숙박 체험이 가능하고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카페, 돌레길 등을 곁들여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 '공연+힐링'이 가능하다.

공연 일정,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필봉문화촌(063-643-1902)에서 안내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한옥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펼쳐지는 필봉의 흥겨운 풍물 공연을 마음껏 즐기시고 잊지 못할 추억을 임실에서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며 "전통과 역사를 지닌 필봉농악 공연이 전국 각지에서 임실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춤추는 상쇠 '필봉백년' 포스터

우진문화재단, 실내악 시리즈 펼쳐진다

글로리아스트링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실내악 시리즈 5회 공연

우진문화재단(대표 김보라)이 7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기획 공연 '글로리아스트링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실내악 시리즈'(이하 실내악 시리즈)를 선보인다.

실내악 시리즈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2024 소공연장 지원사업' 일환으로, 바쁜 일상 속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에게 정서적인 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첫 공연의 제목은 'I. 한여름 밤의 꿈'이다. 세계적인 밴드 Queen과 Radiohead의 대표곡 Bohemian

Rhapsody와 Creep 등 유명한 팝송과, 탱고 음악의 거장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대표곡을 실내악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특히 관객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공연은 주말 오후 5시에 진행되며, 음악 취향에 따라 공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총 5가지 주제로 시리즈를 구성했다.

공연 정보 확인 및 입장권 예매는 전주티켓박스 누리집(ticketbox.com)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우진문화공간(063-272-7223)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 관광산업 성장 돕는다

관광스타트업 발굴 · 육성사업 공모전 참여기업 4개사 추가 선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관광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사업 공모전 참여기업 4개사를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관광 분야 창업 확산을 통해 전북자치도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신청은 19~26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재단 공식 누리집(www.jtct.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분야는 △관광답테크, △관광인프라, △실감형관광콘텐츠, △관광체험서비스, △지역특화콘텐츠 등으로,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는 서류심사

시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최대 3,000만 원의 사업과 자금 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함께 센터 내 사무 공간 제공, △기업 홍보 및 판로 개척, △투자유치, △관광인재 채용 지원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기업을 선정하며, 8월 말 재단 누리집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구혜경 관광사업본부장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발굴해 전북자치도 관광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2)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 콘서트 '다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공연한다.

7월 이야기 손님으로는 판소리 분야 전인삼 명창이 초대되어, 그의 소리 인생과 함께 동편제 판소리의 전통과 매력을 나누며, 전 명창은 남일 출신으로 동편제 판소리의 거장 강도근 명창 문하에서 사사하고, 제23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과 KBS 국악대상 판소리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리 음악 즐기 코너에서는 판소리는 또 다른 느낌을 지닌 전통 성악 정가를 장명서 가객과 그의 팀이 선보인다. 장명서는 정가를 계승하며 현대 음악과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며, 전주MBC 목서운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마련되는 '다담'은 공연 1시간 전부터 예음당 로비에서 향긋한 차와 다과를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친구추가) 및 전화(063-620-2329)를 통해 예약 및 공연 소식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18일 군산항에서 중국 청소년 문화교류 단체를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중국 청소년들 전북특별자치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화교류 단체 환대행사 가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8일 군산항에서 중국 청소년 문화교류 단체를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여름방학 기간 군산과 중국 석도 간 여객선을 이용해 전북자치도에 방문한 200여 명의 중국 청소년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재단에 따르면 중국 석도항을 통해 군산항에 입항한 중국 청소년 200명을 환영하기 위해 전북민의 웰컴키트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축하 공연 등을 펼쳤다.

특히, '2024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서비스사업 청년예술력'에 참여 중인 '살롱드국악 선율

모리'가 맡아 한국의 전통음악과 중국의 대중가요를 선보였다.

한편, 중국 청소년은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과 경기, 전북을 오가며 문화 체험을 진행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환대 행사는 전북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 간의 우정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중국 청소년이 전북자치도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마케팅팀(063-230-7485)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클래식프린트, 한지청사진' 워크숍 참가자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 20일까지 모집... 24일 전주천년한지관서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0일 까지 '클래식프린트, 한지청사진' 워크숍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jnhm.kr)에서 할 수 있다.

18일 전당에 따르면 한지청사진 워크숍은 전통한지 예술교육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한지 위에 특정 용액을 발라 빛에 노출시키면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이미지가 나타나는 아날로그 사진 인화 방법 중 하나인 '청사진 기법'을 주제로 한다.

특히 청사진 기법은 날씨와 습도 등에 따라

같은 이미지라도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며 모든 과정이 손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전통한지 고유의 질감과 매력적인 실루엣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24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진행된다.

김도영 원장은 "우리 전통한지는 쓰임새에 따라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시민들에게 전통한지의 다양한 쓰임을 공유하고자 기획된 이번 워크숍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며 주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